



한국미술의 모든 것 담은 기초자료집 개인재산 털어가며 17년동안 같은 작업

— 「미술연감」 통권11권째 만든 이재운씨

이 책 그 사람

뜻모르는 낱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 사전을 펼쳐들 듯 어느 한 해 동안 일어났던 특정분야의 동향이

궁금할 때 들춰보는 것이 해당분야의 연감이다. 가령 그것이 1989년도의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관한 거라면 그에 관한 연감 하나만으로 당해년도의 자동차의 모든 것, 즉 생산기종이랄지 설계, 회사, 배기량, 연료, 수출량, 도로포장률 등 자동차산업에 관한 전체의 것을 월별 부문별로 조망해볼 수 있게 된다. 그 하나로 보았을 때 어느 한 해, 어느 한 분야의 사실기록일 뿐이지만 그와 같은 작업이 산업의 제분야, 학술의 각 부문, 문화예술의 세목으로 확대되고 수십년에 걸쳐 축적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생생한 '歷史'가 되며 그 가치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폭된다.

私財를 몽땅 털어가며 '거의' 혼자서 올해로 통권 11권째의 「미술연감」을 발행해온 이재운(53)씨는 연감이 지닌 이같은 가치의 중요성에 일찌감치 눈을 뜬 사람이다. 당해년도 미술계에서 일어났던 각종의 전시회를 일일이 체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크고작은 사진·사교, 세미나 등의 학술관계, 화가나 미술관계자들의 화력이나 이력 등 세세한 사항까지 미술분야에 관한 것이라면 그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 해온 그는 지난 75년 이래 처음 준비기간 2년여와 더이상 책만들 돈이 없어 결권을 내 뱉해를 제외하곤 17년째 이 작업에 시간과 돈과 열정을 바치면서 상속으로 물려받은 전답 30만평을 간단하게 절판내버렸다.

“칼라인쇄가 많은 미술연감은 다른연감에

비해 제작비가 더 많이 들기도 하고 일반출판물에 비해 소요시간이 길 뿐 아니라 시장도 한정돼 있어 결손이 어쩔 수 없다 생각되지만, 정작 어려웠던 것은 미술가 자신들의 일을 기록하고 미술계를 위한 기초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철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이번 91년도판을 만들기 위해 1만5천여명에게 설문지를 보냈으나 회신은 10%에 불과한 1500명 정도였다. 그의 말에서 연감에 대한 일반의 인식정도와 만드는 사람의 고충이 극명히 드러난다. 여느해와 별 다를 바 없는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최근 발간된 「91년한국미술연감」(미술연감사)은 국배판 크기의 상·하(자료편, 名鑑편) 두권에 1천5백쪽의 규모로, 만드는 데만 1년반이 걸렸다.

어렸을 적 선천으로부터 한학과 서예를 배우는 등 전통적인 유교집안에서 자라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한때 교편을 잡기도 했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외국에서 발행되는 미술신문을 보고 그같은 전문지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 이 '땀뻘진 독'에 빠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다. 제대로의 미술신문을 내기 위해선 그 기초가 되는 연감이나 사전류가 갖춰져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처음엔 10년만 그 기초작업에 매달릴 작정이었으나 그 사이사이 「세계미술대사전」(85년) 「한국양화 1백년」(전4권, 88년) 「미술용어사전」(89년) 등 만만치 않은 '작품'들을 내놓으면서 그 세월은 훌쩍 두배로 뛰어버렸다. 이제 평생의 꿈이던 '미술신문'의 창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신념' 하나로 버티며 외롭고 살아왔다.

— 정혜옥 기자



과학대중화 염두에 둔 생물학 입문서 실생활 직결된 생명과학의 본질 해설

— 「생물에세이」 펴낸 윤소영씨

이 책 그 사람

'동물의 세계'란 외화를 흑백 TV로 보며 자란 세대들에게 그 경험은 참 별난 것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신비를

가르쳐주는 한 통로임에 틀림없었다. 그에 반해 학교에서의 생물수업은 그런 감동을 전해주는 커녕 되레 짜증나는 암기과목쯤으로만 기억된다.

“지금까지 생물교육은 이해과정을 제쳐두고 단편적 사항을 무조건 암기하도록 강요하는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계속돼왔습니다. 이 책은 이미 그렇게 길들여진 청소년들에게 실생활과 직결된 생명과학의 본질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며, 또 이 책을 통해 일반독자들의 오해도 풀렸으면 합니다.”

자신의 책 「생물에세이」(동녘)가 학생들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생명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 계기를 가져다주길 바란다는 저자 윤소영씨(32, 과학세대 기획위원)는, 그렇지만 단순히 쉽게 풀어쓴 흥미위주의 것으로 읽히기보다는 자연과 인간을 제대로 사랑하는 길을 일러주는 안내서로 봐주길 원한다. 사범대에서 생물교육학을 전공한 그에게 이 책은 교육현장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하는 의미도 함께 갖는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정상대로라면 가장 먼저 부임지를 발령받았어야 마땅한데도, 학창시절의 운동권 활동경력 때문인지 졸업후 여태 교단에 서지 못한 교문밖 선생님이로 남아 있다. 그래서 윤소영씨는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싶었던 것들을 이 책을 통해 하고 있는 셈인데, 생명현상의 공통점에서 출발해 생명과 관련된 과학적 현상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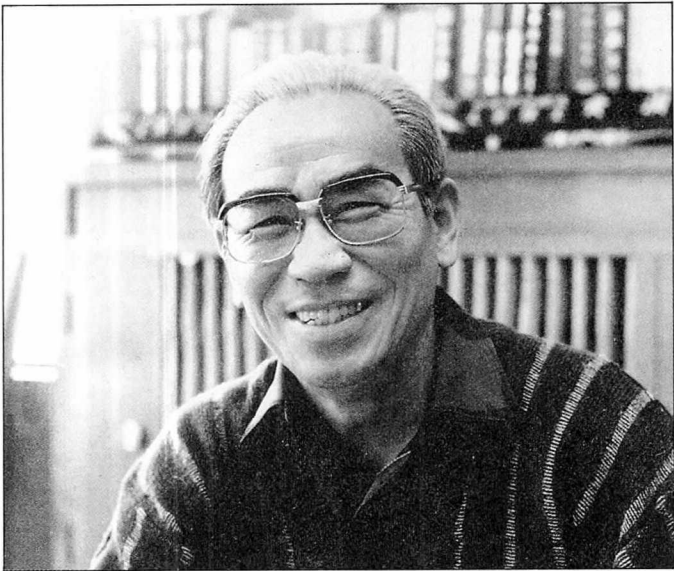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생물의 고유한 특징인 세포와 유전에 대해 먼저 서두를 꺼내는 저자는 그 바탕 위에서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고 발전해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는가를 체계적으로 짚어나가는데, 과학적 사실만을 중시하지 않고 물질의 복잡한 운동형태를 전체 속에서 이해시키려는 뜻을 담고 있다. 크게 6부로 나뉘어 세포와 유전, 그리고 생명의 기원·진화·생물과 환경 등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 쓰고 있는데, 다소 어려운 내용을 보다 빨리 이해시키고 지루함을 덜어내기 위해 퀴즈나 과학우화로 쉬어가는 면을 마련하면서 중간제목도 독자의 시선을 끌게끔 달았다.

“교과서는 틀이 딱딱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지만, 예컨대 영국교과서의 경우 만화를 삽입, 편집해 시각적인 효과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부추킨다”고 전하는 윤소영씨는, 과학이 일상과 유리된 곳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그의 그런 신념은 현재 몸담고 있는 출판기획실 '과학세대'가 목표로 삼는 과학의 대중화운동과 궤를 같이한다.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해 삶의 방향타로 여기는 이 운동의 일환으로 과학소설 기획에 열중하고 있는 윤소영씨는, 자료수집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세살박이 아들에게 얘기를 하듯 집필했다며, “늘 고단해보이던 주위 사람들이 새해들어선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

— 최태원 기자



고사성어 통한 동양정신에로의 입문 유래와 현대적 해석 곁들인 에세이집

—「두 귀를 씻고 듣는 이야기」 펴낸 황패강 교수



합리주의에 뿌리에 두고 성장한 서양의 근대정신이 지금까지 그들의 사고체계와 생활방식을 지배해온

이념이라면, 많은 부분 서구화되고 또한 서구화를 지향하는 동양의 정신적 뿌리도 이제 그 거처를 이성과 논리의 세계로 옮겨야 할지 모른다. 태어나자마자 이미 동서양의 구분이 모호해진 도시 한복판을 맞닥뜨려야 했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더욱, 새삼스레 동양정신을 운위한다는 일이 입기 싫은 낯은 외투를 걸치는 것과 같은 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낯음'이 주는 편안함은 익숙하면서도 때로 새로운 것이어서, '溫故之情'을 도답게 한다.

오랫동안 고전문학에 몸담아온 황패강교수(63, 단국대 국문과)는 최근 저서 「두 귀를 씻고 듣는 이야기」(단국대출판부)에서 동양적 사고의 체험을 위한 한 방법으로 고사성어에의 접근을 권유한다. 그 유래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나 교훈을 얻음은 물론 당시를 살았던 인물들의 행적에서 가장 '고전적'인 동양적 사고의 면모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이 아흔살에 집 앞을 가로막은 산이 불편하다 하여 그 산을 헐어 옮기기로 작정하고 조금씩 파낸 흙과 돌을 멀리까지 날라다 버린 '우공'이 결국은 하늘의 도움을 얻어 일을 성사시켰다는 '愚公移山'의 교훈은 소신과 끈기라는 현대적 덕목을 일깨우는 한편 "내가 이루지 못하면 다음 대가 이어 하리라"는 여유로움, 어찌보면 예의 덕목과 배려될 법도 한 동양 특유의 느긋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또한 요나라 임금이 천자의 자리를 자신에게 물려주고자 부른다는 말을 듣고 더러워진 자기 귀를 씻었다는 '허유'와, 그 물을 자신의 소가 마시게 할 수는 없다 하여 소를 끌고 자리를 옮긴 巢父의 이야기의 경우는 그 자체로 선비정신을 표상한다.

“고사성어의 단순한 뜻풀이에 머물지 않고 육순이 넘도록 매료돼온 동양고전의 세계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담은 수필집을 펴내고 싶었다”는 황교수에 의하면, 이 책에 등장하는 고사성어들은 대부분 중국 고전들에서 “반드시 그에 얽힌 이야기를 갖고 있으면서 교훈적인 것, 그 이야기가 따분하지 않고 새로운 것”이라는 기준으로 가려 뽑은 것이다. 이젠 학자들도 자신의 학문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알릴 책임이 있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읽힐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로 씌어진 이 책이 “혹 동양의 고전을 순하게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된다는 그는, 원전에 의거한 정확한 고증은 여하한 형태의 글에서라도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오래전 얘기지만 신춘문예 본선에 오르기도 했던 자신의 '문청' 기질이 글쓰기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이 학술논문이건 수필이건 간에 '문장'에 유난히 세심한 배려를 쏟게 한다는 황교수는,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無智亦無得'이라는 「반야심경」의 한 구절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절실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 정소연 기자



일본군의 중국인학살 소설화한 보고서 미공개 실록화보 다수 소개해 충격적

—「南京大虐殺」 펴낸 박옥상씨



요즈음 신문·방송은 물론이거니와 웬만한 사람들이 두서너트 모여 이루어지는 이야기자리마다의 주된

화제는 '일본'이다. 전후의 폐허 위에서 이룩한 경제대국 일본의 성장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그 하나라면 뒤늦게 터져나온 정신대 문제는 때로는 감정적 분노를 수반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입을 타는 또 하나의 사안이다.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박옥상씨(55)는 최근의 이러한 일본에 대한 관심의 핵심은 무엇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경계에 놓여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걸프전을 계기로 포문을 연 '자위대'의 해외파병, 아시아 경제통합체 구성을 위한 외교적 움직임 등을 군국주의 부활의 중요한 징후로 예시하는 그가 최근에 펴낸 「南京大虐殺」(팔복원)은 “일본 군국주의의 실체를 밝히고자” 소설형식을 빌어 작성한 일종의 보고서이다.

'남경대학살' 사건은 중·일전쟁이 진행중이던 1937년 12월 13일부터 1938년 1월 24일까지 40여일간 중국대륙 제3의 도시인 南京에서 일본군대가 중국인 약 30여만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중국인 서지경의 책 「남경대학살」과 존 마기 목사의 기록영화를 비롯하여 신문자료, 생존자 및 학살에 참여했던 일본인의 증언기록, 재판기록 등을 토대로 한 이 책은 남경대학살의 발발배경을 살피는 데서 출발한다. 가공할만한 살상을 통해 항전의지를 꺾는다는 일본군의 전략과, 분열되고 헤이해진 중국인의 힘의 재결합을 위해 남경 시민을 희생양으로 내몬 장개석의 수도 포기

남경학살을 낳았다는 것이 그것.

중국 처녀 요정정과 일본장교 이시하라의 사랑과 갈등, '국제안전지구'에서 헌신한 외국인들, 일본군대의 만행을 담은 사진을 외국으로 내보내기 위해 목숨을 바친 진관충 등 가상으로 설정한 인물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엮어나간 이 책의 1부 실록소설에는 인간이기를 거부한 야만적 폭력이 저지른 살상과 그로 인한 비극이 극적 구조와 사실기록으로 동시에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현장을 보다 선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이 책의 2부에 수록된 실록화보. 거리에 나뭇구는 중국인의 머리, 강간당한 후 처참한 모습으로 살륙당한 여인들, 생체실험에 덧쌓인 실험용 인간의 시체 등 2백여점의 사진이 그것인데 이들 중 대부분은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것이어서 그 충격의 크기를 더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류가 인류를 회멸하는 기록입니다.” 남경학살사건을 이렇게 요약하는 그는 그 기록이 최근 우리나라의 통일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인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1969년 「이수」로 영화감독으로 나선 이래 지금까지 흥행작 한편 내보지 못한 '무명감독'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그는 언젠가 우리 분단의 역사와 통일의 전망을 담은 '제대로 된' 영화 한편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 박남정 기자